

이스라엘, 제 18대 총선 결과 및 향후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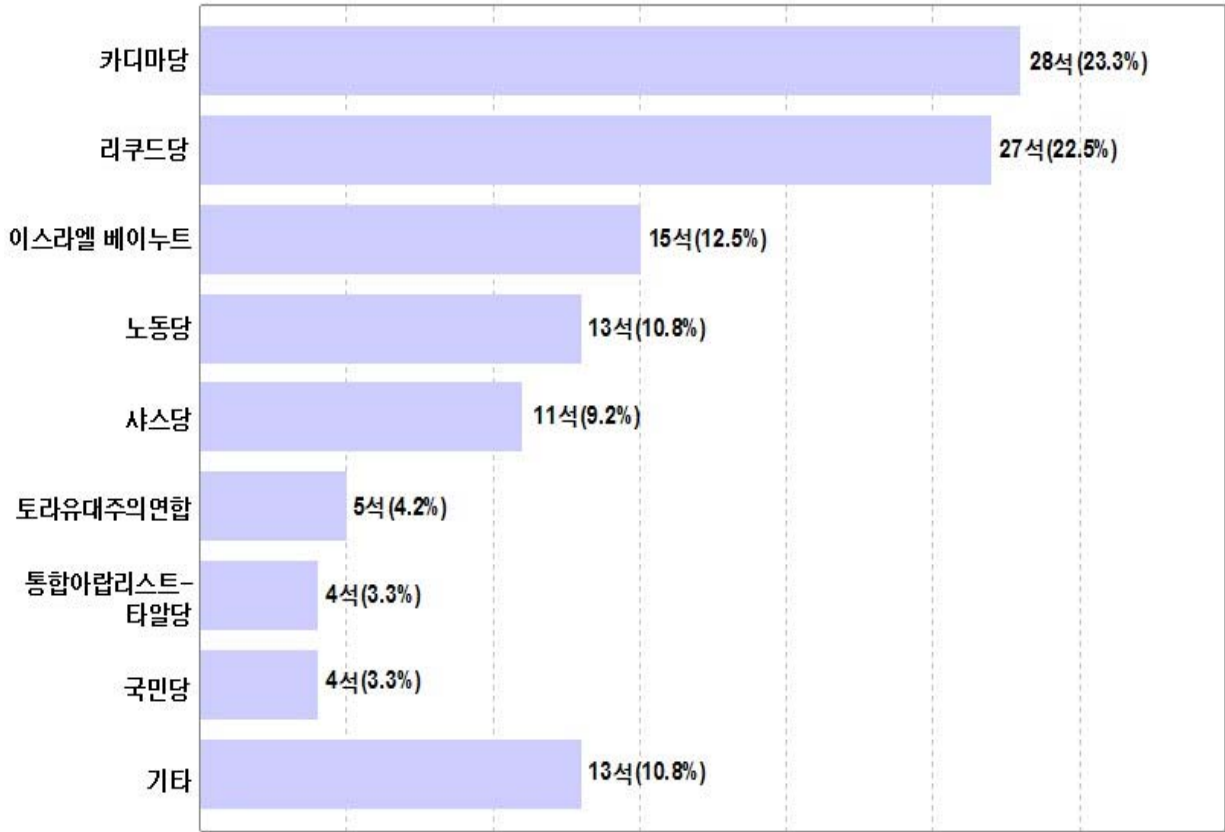
1. 총선 결과

□ 카디마당의 승리에도 불구하고, 리쿠드당 중심의 보수진영이 약진

- 지난 2월 10일 실시된 제 18대 이스라엘 국회(Knesset)의원 선거 결과, 치피 리브니(Tzipi Livni) 외무장관이 이끄는 카디마당(Kadima)이 전체 의석 120석 중 28석을 차지하여 27석을 얻은 리쿠드당(Likud)을 막판에 누르고 역전 승리를 거두었음.
- 한편, 중도 정당인 카디마당이 제 1당 자리를 차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, 전체적으로는 팔레스타인 대립문제에 대해 무력사용을 선호하는 우파가 약진한 것으로 나타남.
 - 이스라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, 우파정당인 리쿠드당의 의석수가 기존의 12석에서 27석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, 극우정파인 이스라엘 베이누트(Yisrael Beiteinu)도 중도 좌파인 노동당을 누르고 15석을 차지하는 등 보수진영 정당들이 전체 120석 중 과반인 65석을 점령한 것으로 집계됨.
- 이스라엘 내 소수 아랍계 주민 중심의 하다쉬당(Hadash)과 통합아랍 리스트(United Arab List), 발라드(Balad) 세 정당 또한 크네세트(Knesset) 의회에서 11석을 차지하는 선전을 기록하였음.
 - 이러한 결과는 극우정당인 이스라엘 베이누트(Yisrael Beiteinu)의 당수인

아비그도르 리베르만(Avigdor Lieberman)의 아랍계 주민에 대한 증오심이 아랍계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유도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됨.

<그림 1> 이스라엘, 제 18대 총선 결과



자료: 이스라엘 중앙선거관리위원회

□ 총선결과에 대한 팔레스타인 등 주변국의 우려 고조

- 팔레스타인 강경정파인 하마스(Hamas)는 이스라엘 총선에서 우파 정당들이 약진한 결과에 대해 “이스라엘 유권자들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테러를 주장하는 후보 3명*을 뽑았다”며 맹렬히 비난하였으며, 레비논의 하마스 고위 간부인 오사마 함단(Osama Hamdan)도 우파 정부가 출범하게 될 경우, 현재 이집트의 중재로 진행 중인 이스라엘과의 휴전협상이 난항을 겪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함.

* 카디마당의 리브니, 리쿠드당의 네타냐후, 이스라엘 베이누트의 리베르만

- 아랍권 또한 그동안 중동평화협상의 진전을 위해 보수정당보다는 리브니(Livni) 외무장관이 이끄는 중도 성향의 카디마당이 선전하기를 선호해왔으나, 이스라엘 총선 결과가 극우 정당의 약진 등 보수파의 강세로 이어지자 유감의 의사를 표명함.
- 이란의 하산 카슈카비(Hassan Qashqavi) 외무부 대변인은 대부분의 이스라엘 정당이 이번 선거운동을 통해 팔레스타인에 대한 잔인하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인 데에 대한 유감을 표명
- 한편, 새로 구성되는 이스라엘의 연립정부가 어떠한 형태로 구성되든지 간에 극우 정당의 비중이 비교적 크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향후 정책방향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됨.
- 하마스의 오사마 함단(Osama Hamdan) 대변인은 “카디마 정부, 리쿠드 정부 모두 팔레스타인에 대해 적대적인 점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음”을 강조, “다만 네타냐후 및 기타 우파와 달리, 카디마당의 리브니는 서방과 미국의 방어를 받을 수 있는 적대 정책을 구사할 뿐”이라 폄하

2. 총선 이후 정국 전망

□ 리쿠드당 네타냐후 대표의 차기 총리설 부각

- 금번 총선 결과를 놓고 카디마당의 리브니와 리쿠드당의 네타냐후 두 대표가 서로 승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, 우파 네타냐후의 차기 총리설이 부각되고 있음.
- 리쿠드당이 비록 개별 정당 투표에서는 카디마당에 패배한 바 있으나, 두 당 모두 크네세트(Knesset) 의회 전체 120석 중 과반 득표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, 리쿠드당이 보수진영의 정당들을 규합해 65석을 확보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평가됨.
- 이에 따라, 좌파 정당만으로는 연정 구성이 어려운 카디마당의 리브니와

달리, 우파 정당의 선전으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네타냐후는 현재 카디마당 또는 노동당을 끌어들이어 안정적인 연정을 구성하는 방안과 중도좌파 정당을 배제한 채 우파정당 중심의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 중임.

- 그러나 지난 1996년 네타냐후가 우파 중심의 연정을 구성하였다가 연정 붕괴로 인해 총리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었던 점*을 감안할 때, 이번에는 카디마당 및 노동당이 참여하는 폭넓은 연정 구성을 위해 막후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.

* 네타냐후는 지난 1996년 우파 중심의 정권을 구성한 이래 미 클린턴 정부와의 관계가 악화된 점을 후회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.

- 한편 카디마당의 리브니는 향후 네타냐후 정권이 성립될 경우 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공식 표명한 바 있어, 두 정당이 연합정부를 구성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됨.

□ 네타냐후 정권 성립 시, 중동평화협상 추진에 어려움 예상

- 조만간 이스라엘의 시몬 페레스(Shimon Peres) 대통령이 의회 지도자들을 소집하여 차기 정부를 구성할 총리를 선택할 계획인 가운데, 예상대로 네타냐후의 보수 연정이 출범하게 될 경우, 對 팔레스타인 평화협상 추진에는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.

- 네타냐후는 그동안 '두 국가(이스라엘-팔레스타인) 공존안'에 대한 반대 입장을 지지해오다가 최근 들어 동 정책을 지지하는 쪽으로 선회한 바 있으나, 팔레스타인 서안 지역의 유대인 정착촌 철수 및 아랍민족의 비중이 높은 동예루살렘 지역을 팔레스타인에 양도하는 데에는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.

-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 건설이 가까운 미래에 성립 불가능하다고 보고 팔레스타인 자치지역 내 경제를 활성화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춘 네타

냐후의 정책은 팔레스타인의 독립국가 수립을 통해 중동평화를 이룩하려는 미 오바마 행정부의 입장과 크게 상충됨.

- 또한 네타냐후는 자신이 총리직에 집권하면 현 하마스 체제를 붕괴시켰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온 바 있으며, 그의 최대 연정 파트너가 될 이스라엘 베이누트의 리베르만 또한 동일한 공약을 해온 바, 하마스와의 장기휴전 협정을 체결하는 대신에 제2의 가자지구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.
- 이밖에도 네타냐후는 이스라엘이 지난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때 점령한 골란고원을 시리아에 반환하지 않겠다고 밝혀, 기존 올메르트 정부 시절 터키의 중재로 다섯 차례에 걸쳐 실시된 시리아와의 평화협상 또한 재개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.

전문연구원 김예리(☎02-3779-6686)

E-mail : yeliekim@koreaexim.go.kr